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약수 본격 출하

20일부터 3월20일까지...가격은 작년과 동일 위생 관리·점검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총력

광양시가 백운산 고로쇠수액을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채취 및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5L×12개 60,000원, 4.5L×4개 60,000원, 18L×1개 55,000원 등 백운산 고로쇠수액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다.

백운산 고로쇠수액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되었고,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성인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고로쇠수액 채취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수액 명성

유지를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용기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 결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작년 한해 340여 농가가 97만 리터 고로쇠를 채취해 33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광양 고로쇠채취 농가들은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수액용기에 정제일자 표기, 지리적 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로쇠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광양시와 서울대학교수립 및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 합동으로 고로쇠 채취 전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해 고로쇠 품질 및 고객 신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고로쇠수액은 여러 미네랄 성분이 다양으로 들어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 품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의 선호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로쇠수액을 위생적으로 채취함과 동시에 산림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전남도 유일 최우수 기관 선정

장관 기관 표창·특별교부세 확보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번 성과로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04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민원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내용은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

야, 5개 항목,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여수시는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올랐다.

특히 민원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에 출동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신속민원 쿨(Cool) 기동처리반'과 '키카오톡 민원 채널'을 운영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최소화',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마련', '행복민원실 운영' 등도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한파 딛고 한라봉 수확에 구슬땀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흥에서는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수확에 황금빛 열매를 따는 농가들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최근 한라봉 수확이 한창인 영농 현장을 찾아 농촌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면서 수확에도 동참하는 등 현장행정과 함께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도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송기군수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 사기가 저하되는 여건 속에서도 명품 한라봉을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고흥 한라봉이 생산될 수 있다"며 농가를 격려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해양 수산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보성군은 어업인 소득과 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2021~2022년 해양 수산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

대상 사업은 어업인 감척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사업, 친환경경 표류 보급 지원 사업 등 총 22종 40억 원 규모다.

신청은 어업인·어촌계·수협·영어법인·기타 수산 관련 단체가 어업 활동지의 읍·면사무소(별교, 득량, 회천)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별 지원 조건, 자격, 지원 내용 등을 상담한 후 가능하다.

군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보성군 수산조정심의회를 거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한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 시민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에 활력

복지가 실물경제 활성화 동력 되는 복지형 성장모델

순천시는 복지투자가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수적 기반으로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소비를 통해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노인가구 최저 빈곤문제 해결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 7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애, 해산, 자활)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기준 4,700가구 6,050명인데 확대된 지침에 따라 2021년에는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생계비 예산이 총 26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에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실질

적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구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 본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순천시 주거급여는 총 6,101가구로 자기소유 682가구에는 현물급여인 집수리 지원, 임대가구 5,419가구에는 월 임차료(4인 가구 25만3천원)를 지원하는데, 2020년까지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 타 시군구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가 추가 지원되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 저소득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지원

순천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및 자선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순천시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2종류로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총 15개 사업단 등에 225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21년에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새싹인삼재배, 식자재포장, 알밤깍기와 청년자립을 위한 특화된 '청년카페', '인턴형사업' 등 총 5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

자선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자 적립금에 일정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매칭지원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기움(I, II)과 내일기움, 청년희망기움,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269명이 참여중으로 올해는 50여명을 추가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재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재가의료 서비스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거나 퇴원을 희망하는 30명에게 가정 등 살던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순천의료원과 연계한 케어플랜, 건강·생활상담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퇴원환자 상태를 고려한 1일 3식 식사제공, △교통비 지원, △LH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올해는 학생별 초·중·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되며, 2021년에는 초등학생 28만6천원(인상율 38.8%), 중학생 37만6천원(인상율 27.5%), 고등학생 44만8천원(인상율 6.1%)으로 2020년 대비 평균 24%나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